

개념 이해하고 한 문제라도 정확히... '마무리' 잘하면 100일의 기적 본다

수능 D-100일

2016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11월 12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여름의 폭염에 지쳐 마음이 느슨해졌던 수험생들도 'D-100' 작전에 돌입해 선택한 수능 영역별로 마무리 학습을 시작해야 할 때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성적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국어영역...오답률 높은 서술·표현·어법 등 주의해야=국어 A형은 기본 지식과 개념·원리 등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국어영역, 오답률 높은 서술·표현·어법 꼼꼼히 정리

수학영역, 출제 빈도 높고 취약한 단원 집중 점검

사회·과학탐구, 신문사설·칼럼 읽어 변별력 높은 문항 대비

B형은 여기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더해진다.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을 폭넓게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들을 정

리하고, 특히 EBS 교재에 별도로 나와 있는 문학 지문도 철저히 점검해두자.

문학에서 가장 쉽게 틀리는 문제 유형 중 하나는 서술·표현상의 특징이다. 따라서 문학을 공부할 때에는 내용 감상에 치우치지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위권 학생은 비문학 지문과 도표·그래프 등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자.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어휘·어법 문항에 대비해 맞춤법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중상위권은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자. 과거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과 문제 유형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난 수능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영역...기본개념 숙지하고 한 문제라도 정확히 풀어보자=수학 영역은 인문계 학생과 일부 자연계 학생이 응시하는 수학A형, 자연계 학생이 중심으로 응시하는 수학 B형으로 시험을 본다.

수학A형은 정답률이 낮은 단원인 확률과 통계, 함수의 극한, 지수와 로그함수 단원 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수학B형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공간도형과 벡터, 정적분의 응용, 미분법 활용 단원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실생활 응용 등의 문항은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거나 상황을 단순화시켜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학은 너무 문제 풀이의 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정확히 푸는 '질적 접근법'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이라도 해법을 머릿속으로 고민해보자.

중상위권 학생은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 유형과 취약 단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자. 중하위권 이하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응용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영어영역...EBS 교재 해석본 읽기 소용없어=영어는 올해부터 EBS 교재의 지문해석을 읽기에서는 풀 수 없도록 출제 방식이 변경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석본

을 자주 보게 되면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문장 구성과 글의 대의를 차근차근 파악하는 연습을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 간접 쓰기, 세부 사항 등의 출제 문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고, 빈칸 추론은 변별력이 높으므로 고득점을 노린다면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자. 일상생활 소재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지문을 읽으며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유추하는 연습을 계속하자.

상위권 학생은 듣기 시험에 대비해 문항별로는 시간·거리 등 숫자 관련 문제와 말하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 읽기에서는 속도감 있게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며 연습하자.

중상위권은 빈칸 추론, 장문 이해 등 취약한 유형들을 연습하고, 듣기에서도 어려운 3점 문항, 2점 문항 등에 대한 연습을 반복하자.

◇사회·과학 탐구=탐구 영역은 상위권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을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국·영·수가 쉬우면 탐구에서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능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자주 다루지 않았던 개념을 활용하거나 평소 보지 못한 생소한 자료를 활용해 변별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회탐구는 교과목 내용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단원별 목표와 주요 개념을 요약·정리해 보자.

교과서 밖 소재나 시사적인 내용도 출제되므로 신문사설이나 칼럼을 훑으며 사회적 쟁점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상위권 학생은 단원 통합 문제와 교과서 밖의 소재나 시사적인 문제 등 변별력이 높은 문항에 집중적으로 대비하자.

중위권 이하는 단원별 목표와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 실전 능력을 기르자. 교과목별 핵심 개념과 방법을 정리하면서 세부 내용까지 암기 과목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과학탐구도 사회탐구와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핵심 개념과 적용방법을 정리하며 교과서의 실험·탐구 활동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수능에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그래프·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자.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해질 19:34
달출 22:06 달몰 09:47

더위도 너무 덥다

북대양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5/34	보성	맑음	22/33
목포	맑음	25/32	순천	맑음	24/34
여수	맑음	25/31	영광	맑음	25/33
나주	맑음	24/34	진도	맑음	24/32
완도	맑음	24/32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3/35	군산	맑음	24/33
강진	맑음	23/32	남원	맑음	22/33
해남	맑음	24/32	홍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23/33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부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서부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59	10:03
	17:16	22:17
여수	11:47	05:32
	23:30	17:41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	☀	☀	☀	☀	☀	☀
25/34	25/34	25/34	25/34	25/33	24/32	24/30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40
운동	90
빨래	

죽산보-녹조, 승촌보-큰빛이끼벌레 번성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계 파괴 가속...강 흐르게 해야"

영산강 지류뿐만 아니라 본류에서도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큰빛이끼벌레 출현이 매년 반복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영산강 죽산보 구간은 녹조, 승촌보 구간은 큰빛이끼벌레, 상류(광주 구간)는 좁게구리밭이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영산강은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며 "영산강을 흐르게 해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문평천 등 지류뿐만 아니라 죽산보(나주 다시문) 구간 등 영산강 본류까지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가 하면 승촌보 일원에서는 큰빛이끼벌레가, 영산강 상류(광주구간)에서는 좁게구리밭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생태계 악화와 예산 낭비를 제대로 심판한 뒤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올 전국 6개 대학 '부서관 학군단' 창설

올해 전국 6개 대학에 부서관 학군단 이 생긴다. 오는 5일 대전과학기술대학 의 육군 부서관 학군단 창설식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전국 6개 시범대학에서 부서관 학군단이 설치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부서관 인력 획득 통로를 다양화하고 임관 전 군사교육으로 부서관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학군단 신설이 추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전국의 대학 분포도를 고려해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대학을 시범으로 선정했다.

육군 부서관은 전남과학대, 대전과학기술대·경북전문대·해군 부서관은 경기과학대이다. 영진전문대와 여주대는 공군과 해병대 부서관을 양성한다. /연합뉴스



폭염 축사 선풍기 풀가동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한우농가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축사 내 열기를 식히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4.9도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한우농가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축사 내 열기를 식히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4.9도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30,000원
기념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